

해외 고승 지상법석

여름 특집

자신을 노예로 만듭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맹목적이 아닌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자기가 탐구하는 실천행입니다”

인 자각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신적 정화가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 정화는 어떻게 얻어지나 하면 끊임없는 명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명상을 하다보면 인간의 모든 고통들은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 마음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의 근본

와 보상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어떤 행동을 현재나 미래에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악을 행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선행을 하면 반드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의 또 다른 두드러진 점은 그 가르침을 실행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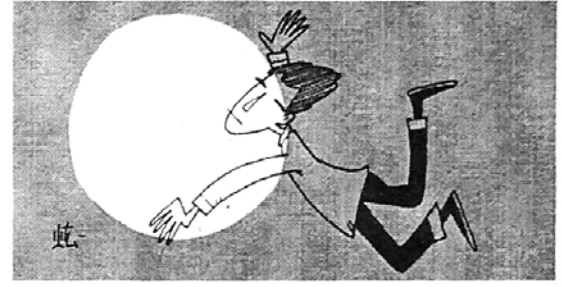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화된 마음으로 탐욕과 미움,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으로부터 점차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가르침이고 끊임없는 자아성찰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요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를 수 있는나 하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제가 여기에

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냉정한 무관심을 털어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게 되고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줄 것입니다 이것은 잔혹함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약입니다. 이것 역시 두 가지의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단순히 슬프다고 느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잔인함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쾌함입니다. 유쾌함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행복을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사람들에 대해 무엇인가 가까이 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전해 들었을 때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늘 유쾌한 사람에게는 그에게 헌신하고 그의 삶에 조화를 이루는 친구가 많이 따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감정을 억제하며 시기심을 치유하는 부처님

이것은 산만함과 걱정을 치유해 주는 부처님의 약이며, 역시 두 가지의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가까운 적은 단순한 냉담함이며, 또 다른 먼 적은 일상생활에 있어 자주 일어나게 되는 탐욕과 분노입니다. 마음 속에 이 모든 덕목들을 잘 새기고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수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가장 가치있는 점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을 소멸하는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평한 뿐만 아니라 고평함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명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명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겁니다. 명상은 조용한 장소에서 이른 아침에 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물론



반야공 사상의 핵심은 법계가 연기(緣起)이므로 무자성(無自性)이고 무자성이므로 공(空)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오직 연기이고 무자성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은 구성하는 모든 것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즉 오온(五蘊)이 모두 공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하여 잠시 생겨난 것일 뿐이며 그에 따라 그것에 영성이 일시적으로 부여된 것 뿐이다.

반야공 사상의 핵심은 법계가 연기(緣起)이므로 무자성(無自性)이고 무자성이므로 공(空)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오직 연기이고 무자성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은 구성하는 모든 것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즉 오온(五蘊)이 모두 공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하여 잠시 생겨난 것일 뿐이며 그에 따라 그것에 영성이 일시적으로 부여된 것 뿐이다.

이러한 반야공의 이치가 체득되면 반야 바라밀을 행한다면 행하지 않는다는 든가 하는 터럭만큼의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여 대품반야 불발품(奉鉢品)에서는 “보살마하살이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에는 보살을 보지 않고 보살이란 명칭을 보지 않으며 반야 바라밀다를 보지 않는다. 또한 내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고 있다고도 보지 않으며 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보지 않는다.” 라고 하였으며 금강경에서는 “응당히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또한 법이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불발품에서는 “보살이란 것도 보살이

로 공이라는 것도 그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공에 대해서도 색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집착하여서는 안된다. 이 공까지도 공한 것이라고 부정하는 것이 공공이다. 그리하여 공극적으로 공이 아닌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필경공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물리학에서 말하는 진공이란 불교에서의 공의 의미와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공에서는 우리가 여지껏 절대적인 것처럼 여기고 집착해왔던 제존재를 놓아 버려야만 하였는데, 공공에 와서는 그 공이라는 것마저 놓아야 한다. 천길 낭떠러지에서 의외하고 있던 색이라는 한 가닥의 밧줄을 놓아버리고 다시 공이라는 밧줄까지 놓으라고 가르친다. 이와 연관하여 바라밀다라는 말의 의미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물리학의 '진공' 개념 공의 의미 못미쳐 집착해왔던 모든 존재 놓아야 지혜완성

란 명칭도 그 본성은 공이며, 공 가운데에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또한 색을 여의고 공이 없으며 수상행식을 여의고 공이 없기 때문이다. 색은 바로 공이며 공은 바로 색이며, 수상행식이 공이며 공이 수상행식이다. 왜냐하면 명칭만으로 보리라고 하며 명칭만으로 보살이라고 하며 명칭만으로 공이라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에 대한 논의는 대품반야경에 나오는 십팔공(十八空)에서 모든 존재나 생존체가 무자성이라는 법공(法空)이나 중생공(衆生空)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18공의 하나 하나를 소개하는 것은 이 글에서 별의미가 없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공공(空空)이나 필경공(畢竟空)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공묘유나 색즉시공을 논의하면서 색의 성품이 공하다고 하였다. 상대론적 양자역학에 기초한 현대물리학의 진공 개념이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자가 그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가능태라고 하였다. 그런 데 이 말에만 집착을 하게되면 우리가

모든 욕망 뿌리 뽑혀야 비로소 자유로운 경지 도달 악한 행동에 고통따르고 선업 쌓으면 반드시 행복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불법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회에 참석하거나 어떤 목적이 있어 절에 올 때 부처님에게서 어떤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은 조금도 말한 것처럼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니 만큼 자신 스스로 불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대로 오계를 지키려는 꾸준한 노력이 수반돼야 합니다. 오계가 출가한 승려들만이 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기도 하지만 오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계는 어떤 외부의 힘보다는 스스로 실천할 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계는 진실한 행복의 방향으로 한발씩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과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갖기 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적당한 것인가 믿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가르침보다는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칼라마 사람들은 수 많은 종교의 교리 때문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 스스로 탐구해서 어떤 것들이 부적합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학대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죽음을 두려워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죽이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이신 친절과 자비, 유쾌함과 평온을 배우는 것입니다.

친절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 마음은 매일 매일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얻은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나 증오하는 사람에게 실천해 보세요. 그들 모두가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증오와 미움이라는 질멸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약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두 가지 적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적은 사랑이라는 말을 쓴 감각적 집착입니다. 반면에 멀리 있는 다른 하나의 적은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친절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하면서 이 두가지 적을 조심해야 합니다. 준비심도 좋은 덕목입니다. 고

“친절은 증오·미움에서 나를 구하고 자비심은 고통받는 이웃을 구하고 유쾌함은 남의 성공을 기뻐하면서 얻고 평온함은 잡념을 버리면서 얻습니다”

의 약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의 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이 목표를 성취하고 단순히 행복을 얻었다는 식의 사고방식이고 또 다른 적은 이 유쾌함에 대한 권태와 혐오심입니다. 평온함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거나 혼자서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과 쓸데없는 집념을 없애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여유와 침착함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조경해 줍니다.

대원불교대학

학생 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5년 8월 31일까지

대원불교대학에서는 정법의 기치아래
대중불교를 선도할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과목 : 주 5일 수업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당학	불교복지론	종교사 및 종교학	완전강독 I

■ 특 전 : 졸업후: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